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藥方』에 관한 研究

한경석* · 박성식*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Discourse on The Medications and Prescriptions on The DongyiSooseBowon Gabobon

Han Kyung-suk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Background and Purpose

At the year of 2000,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cquired 『HamsanSachon DongyiSooseBowon GaboGubon』 which is seen as a written copy of 『GaboBon』.

According to Lee Sung-su who is the great-grandson of DongMu's older brother, 『HamsanSachon DongyiSooseBowon GaboGubon』 was worked by Lee Jin-yoon who is the grandson of DongMu's older brother, and it was copied by Han Min-gab and now is owned by Lee Sung-su who is son of Lee Jin-yoon.

2. Methods

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understand of the character of the discourse on the medications and prescriptions of the 『HamsanSachon DongyiSooseBowon GaboGubon』.

3. Result and Conclusion

- 1) Newly created prescriptions of 『GaboBon』 is composed of the 125 medications of Soeumin 46, Soyangin 36, Taemin 29, Taeyangin 14. Regarding with that prescriptions, the average number of the medications per prescription is 9.3 and the average capacity of that is 42.6gram.
- 2) The experimental prescription is from 『GaboBon』. All the 37 prescriptions of 『Sanghanlon』 is found at the text of 『GaboBon』, and only 12 of 37 prescriptions of Traditional Medicine excepting 『Sanghanlon』 is described at the text of it. Hardly any case of treatment by Traditional Prescription can be found at the discourse on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 3) Only 13 of 69 newly created prescriptions is not prescribed at 『GaboBon』, and 7 of the 13 prescriptions don't have the symptom of charge also.
- 4) 6 prescriptions which are supposed to newly created prescriptions of 『The Discourse on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are not describe to the composition of medications.
- 5) All the newly created prescriptions of 『The General Remarks on the Soeumin』 of 『SinChucBon』 are to be regarded as GaboBon's.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한경석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031-710-3723 E-mail)hanks@dongguk.edu

I. 緒論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은 1893년 7월 13일부터 東武가 58歲인 1894년 4월 13일까지 漢南山中에서 著述¹⁾한 책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東醫壽世保元』중 改抄되지 못한 부분과 篇名정도였다.

2000년 四象體質醫學會의 李濟馬 100周年 追慕事業 때 東武의 從曾孫인 李聖洙를 통해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을 抄錄한 것으로 추정되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이란 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東醫壽世保元 研究에 대한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現在까지 四象醫學은 藥方에 관해서 매우 많은 研究가 進行되고 있으나 대부분 辛丑本 등의 東醫壽世保元과 관련된 藥方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甲午本 藥方에 관한 내용은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²⁾, 四象醫學大典³⁾ 등에서 언급된 補遺方 뿐이었다. 그러나 草本卷이 소개된 이후에 草本卷 藥方에 대한 연구가 되기 시작했는데 李⁴⁾의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李⁵⁾의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에 관한 文獻的 考察”, 玉⁶⁾의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의 比較를 통한 四象 方劑의 變遷 過程에 대한 研究”가 있다.

이에 본 著者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중심으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藥方의 特徵을 研究한 結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知見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本 研究는 東武의 從孫인 李鎭胤의 主導로 1940년 韓敏甲이 抄錄하고, 東武의 從曾孫인 李聖洙가 現在 所藏하고 있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대상으로 하여 藥方의 特徵을 살펴보았다.

먼저 甲午本과 辛丑本의 使用藥物, 藥物數와 藥物分量을 比較하여 藥物選擇의 變化狀況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經驗藥方과 新定藥方의 用例, 藥方構成, 主治證 등의 關係를 살펴보고, 더불어 『東醫四象新編』 등에서 用例와 主治證의 關係를 살펴본 후에 新定方의 藥物선택 特徵을 甲午本과 辛丑本을 比較하여 보았다.

2. 本 研究에서 사용한 版本의 名稱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定하였다.

- 1)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甲午抄錄本’이라 칭하였다.
- 2) 現在 傳하지 않지만 東武가 甲午年에 著述한 『東醫壽世保元』의 原本을 ‘甲午本’이라 칭하였다(甲午抄錄本을 통해 甲午本의 原形에 가까운 형태로 復元하여 이를 基準으로 하였다).
- 3) 現在 傳하지 않지만 東武가 庚子年까지 改抄한 『東醫壽世保元』의 原本을 ‘庚子本’이라 칭하였다(庚子本의 少陰人論, 少陽人論, 太陰人論은 辛丑本과 동일하다. 따라서 病證論의 說明에서는 庚子本과 辛丑本을 동일시 해도 타당하다).
- 4) 活字화된 1901年(辛丑年) 初版本 『東醫壽世保元』⁷⁾을 ‘辛丑本’이라 칭하였다.

III.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藥物에 관한 研究

1. 體質別 新定方의 總 藥物數 比較

甲午本 新定方에서 사용된 藥物은 總 125개이며, 體質에 따라 區分하여 少陰人 藥物이 46개⁸⁾, 少陽人 藥物이 36개⁹⁾, 太陰人 藥物이 29개¹⁰⁾, 太陽人 藥物이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 (卷之四) 34
 2) 李濟馬著.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1972.
 3) 李濟馬著, 朴爽彥譯.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77.
 4) 李壽瓊, 宋一炳.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 ; 11(1) : 63-77.
 5) 李在媛, 宋一炳.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에 관한 文獻的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 ; 11(2) : 75-94.
 6) 옥윤영, 김경요.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의 比較를 통한 四象 方劑의 變遷 過程에 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0 ; 12(2) : 43-55.

7)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8) 乾薑-炮乾薑, 白芍藥-微炒, 白朮-微炒, 紫蘇葉-蘇葉, 白何首烏-赤何首烏를 한 藥物로 헤아린 것이다.

14개¹¹⁾가 사용되고 있다.

辛丑本 新定方에서 사용된 약물은 총 141개이며, 體質에 따라 區分하여 少陰人 藥物이 45개, 少陽人 藥物이 37개, 太陰人 藥物이 45개, 太陽人 藥物이 14개가 사용되고 있다.

甲午本의 體質別 藥物數를 辛丑本과 비교해 보면 太陰人 藥物數가 매우 적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 그림 1과 같다.

표 1. 甲午本과 辛丑本 新定方 藥物數의 比較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總藥物數
甲午本	46	36	29	14	125
辛丑本	45	37	45	14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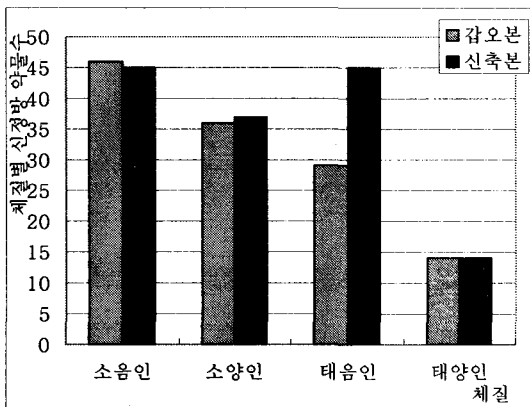


그림 1.

2. 體質別 新定方에서 使用된 藥物들

1) 少陰人 新定方 藥物의 比較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28方¹²⁾에서 사용된 46藥物과 辛丑本 少陰人 新定方 32方¹³⁾에서 사용된 45藥물을 비교했을 때 甲午本의 甘藷, 大頭蒜, 獨頭蒜, 生附子, 肉豆蔻, 丁公藤, 丁香, 川練子, 香薷의 9藥物은

- 9) 茯苓-白茯苓-赤茯苓, 黃連-川黃連을 한 약물로 헤아린 것이다.
- 10) 烏梅-煮烏梅肉, 皂角-猪牙皂角을 한 약물로 헤아린 것이다.
- 11) 太陽人 新定方은 甲午本과 辛丑本의 藥方이 같다.
- 12) 甲午本 新定方의 變方까지 합한 것이며, 藥物頻度 역시 變方까지 계산한 것이다.
- 13) 辛丑本 新定方의 變方까지 합한 것이며, 藥物頻度 역시 變方까지 계산한 것이다.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삭제되었고, 甲午本에 사용되지 않았던 炮乾薑, 大蒜, 炮附子, 五靈脂, 吳茱萸, 赤石脂, 破故紙, 赤何首烏, 胡椒의 9藥物이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추가되었다(표 2).

표 2. 少陰人 新定方의 藥物頻度

藥物名	甲午	辛丑	藥物名	甲午	辛丑
甘藷	1	×	益母草	3	1
炙甘草	23	21	益智仁	1	6
乾薑	13	8	人蔘	20	15
炮乾薑	×	4	茵陳	1	1
鷄	2	1	紫蘇葉	8	2
桂皮	4	2	蘇葉	×	1
桂枝	5	10	赤石脂	×	1
藿香	5	2	丁公藤	1	×
官桂	6	7	丁香	1	×
當歸	10	15	枳實	2	1
大頭蒜	1	×	陳皮	16	22
大蒜	×	1	蒼朮	3	3
獨頭蒜	2	×	川芎	11	7
大腹皮	3	2	川練子	1	×
大棗	23	22	青皮	2	2
木香	3	1	葱白	2	1
半夏	2	3	破故紙	×	1
白豆蔻	2	1	巴豆	1	1
白芍藥	21	19	白何首烏	3	13
白芍微炒	×	1	赤何首烏	×	2
白朮	19	13	香附子	3	7
白朮微炒	×	1	香薷	1	×
附子	7	×	胡椒	×	1
炮附子	×	7	黃芪	10	11
砂仁	4	2	厚朴	3	1
山楂	3	1	金蛇酒	1	1
生薑	14	17	項赤蛇	1	1
清蜜	1	2	獐肝獐茸	1	1
小茴香	1	1	鐵漿水	1	1
罌粟殼	1	1	雉肉	×	1
良薑	2	6	海鹽汁	1	1
五靈脂	×	1	※ 金蛇酒 項赤蛇 獐肝獐茸 鐵漿水 雉肉 海鹽自然汁은 非新定方藥物이다.		
吳茱萸	×	2			
肉豆蔻	1	×			

※ : 甲午本과 辛丑本의 藥物頻度는 新定方의 變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특징적으로 桂枝와 白何首烏의 活用頻度가 改抄되면서 많이 늘었다.

2) 少陽人 新定方 藥物의 比較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22方¹⁴⁾의 36藥物과 辛丑本

少陽人 新定方 26方¹⁵⁾ 37藥物을 비교했을 때 甲午本의 乾地黃, 瓜蒌實, 靈砂, 肉蓯蓉의 4藥物이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삭제되었고, 甲午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瓜蒌仁, 金銀花, 沒藥, 白茯苓, 連翹, 乳香, 川黃連의 7藥物이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추가되었다(표 3).

특징적으로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의 活用頻도가 改抄되면서 많이 증가하였다.

표 3. 少陽人 新定方의 藥物頻度

藥物名	甲午	辛丑	藥物名	甲午	辛丑
甘遂	1	5	熟地黃	1	10
羌活	5	14	柴胡	8	1
乾地黃	1	×	連翹	×	1
輕粉	1	4	靈砂	1	×
苦參	7	3	牛蒡子	3	2
瓜蒌仁	×	1	乳香	×	1
瓜蒌實	2	×	忍冬藤	3	2
枸杞子	2	2	猪苓	5	2
金銀花	×	1	前胡	3	3
獨活	4	14	朱砂	2	2
牡丹皮	2	4	地骨皮	1	3
木通	4	3	知母	8	7
沒藥	×	1	車前子	2	6
薄荷	4	1	肉蓯蓉	2	×
防風	3	20	山梔子	4	2
茯苓	1	12	澤瀉	9	16
白茯苓	×	2	玄參	2	4
赤茯苓	7	2	荊芥	4	18
覆盆子	10	2	滑石	3	2
山茱萸	9	10	黃連	5	1
生地黃	17	10	川黃連	×	4
石膏	8	6	黃柏	4	3

3) 太陰人 新定方 藥物의 比較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18方¹⁶⁾의 29藥物과 辛丑本 太陰人 新定方 26方¹⁷⁾ 45藥物을 비교했을 때 먼저 藥方數와 藥物數가 매우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甲午本에서 사용된 藥物은 모두 庚子本에서 사용되었고, 甲午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藁本, 瓜蒂, 金箔, 蘿蔔子, 大豆黃卷, 白薇, 使君子, 桑白皮, 犀角, 羚羊角, 烏梅, 龍腦, 乾栗, 薏苡仁, 鱗鱒, 蒲黃의 16藥物이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추가되었다(표 4).

표 4. 太陰人 新定方의 藥物頻度

藥物名	甲午	辛丑	藥物名	甲午	辛丑
葛根	5	5	升麻	6	4
藁本	×	2	蓮子肉	2	1
瓜蒂	×	1	羚羊角	×	1
款冬花	2	1	烏梅	×	2
甘菊花	2	1	五味子	8	6
金箔	×	1	龍腦	×	1
桔梗	12	14	龍眼肉	2	3
蘿蔔子	×	9	牛黃	1	1
鹿茸	2	2	熊膽	1	1
大豆黃卷	×	1	遠志	3	4
大黃	6	5	乾栗	×	6
麻黃	4	8	黃栗	3	1
麥門冬	10	12	薏苡仁	×	6
白果	3	1	檉根白皮	2	1
白薇	×	1	鱗鱒	×	3
栝子仁	2	2	皂角	×	1
白芷	2	3	豬牙皂角	1	1
紫背浮萍	1	1	石菖蒲	2	6
使君子	×	1	天門冬	6	4
麝香	1	3	蒲黃	×	1
酸棗仁	7	2	杏仁	6	6
山藥	4	4	黃芩	12	10
桑白皮	×	1			
犀角	×	1			

14) 甲午本 新定方의 變方까지 합한 것이며, 藥物頻度 역시 變方까지 계산한 것이다.

15) 辛丑本 新定方의 變方까지 합한 것이며, 藥物頻度 역시 變方까지 계산한 것이다.

16) 甲午本 新定方의 變方까지 합한 것이며, 藥物頻度 역시 變方까지 계산한 것이다.

17) 辛丑本 新定方의 變方까지 합한 것이며, 藥物頻度 역시 變方까지 계산한 것이다.

4) 太陽人 新定方 藥物의 비교

太陽人 藥方은 甲午本의 藥方이 고쳐지지 않고 辛丑本에 그대로 쓰여진 藥方이다.

太陽人 2藥方에서 蕎麥, 蘆根, 木瓜, 獼猴桃, 獼猴藤, 蛤屬, 松葉, 松花, 菜果, 櫻桃肉, 五加皮, 杵頭糖, 青松節, 葡萄根의 14藥物이 사용되었다(표 5).

표 5. 太陽人 新定方의 藥物頻度

辛丑本(14)			
蕎麥	1	菜果	1
蘆根	2	櫻桃肉	2
木瓜	2	五加皮	2
獼猴桃	1	杵頭糖	1
獼猴藤	1	青松節	1
蛤屬	1	葡萄根	2
松葉	1		
松花	1		

3. 新定方 單位 處方의 平均 藥物數와 平均 藥物分量의 比較

1) 少陰人 新定方의 藥物數와 分量의 比較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藥物數의 平均은 11.1개이고, 辛丑本 少陰人 新定方 藥物數의 9.5개로 1.6개의 차이가 있다.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平均藥物의 分量은 12.3錢이고, 辛丑本 少陰人 新定方 藥物分量은 11.6錢으로 0.7錢의 차이가 있다.

甲午本의 表病의 藥方은 주로 10錢 以下の 藥方이 많았고, 裏病의 藥方은 주로 10錢 以上の 藥方이 많이 보이지만, 辛丑本에서는 表裏病의 藥方이 고른 用量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總分量은 錢數가 기술된 약물만 합하였고, 生薑三片, 大棗二枚 등의 분량표시가 힘든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

新定方중에서 湯劑의 형태가 아니거나 分量을 표시가 힘든 甲午本 鷄參膏, 山人甘薯飲, 巴豆丹의 세 藥方과 辛丑本 鷄參膏, 巴豆丹의 두 藥方은 제외하고 平均을 구하였다.

藥物分量이 “一錢 或 二錢”과 같을 경우 平均을 내어 一錢五分으로 계산하였다(표 6).

표 6. 少陰人 新定方 각각의 藥物數와 藥物分量

甲午本	藥物數	總分量(錢)	辛丑本	藥物數	總分量(錢)
芎歸香蘇散	9	8	黃芪桂枝附子湯	8	11-12
藿香正氣散	13	7	人蔘桂枝附子湯	9	14-15
川芎桂枝湯	7	8	升陽益氣附子湯	11	13-14
黃芪蘇葉湯	9	12	人蔘官桂附子湯	9	19-20
升陽八物湯	10	10	升陽益氣湯	10	12
回陽大補湯	12	9.5	補中益氣湯	10	11
健脾壯胃湯	14	11	黃芪桂枝湯	8	10
薑朮壯胃湯	12	11.5	川芎桂枝湯	8	10
補中益氣湯	11	13	芎歸香蘇散	10	8
獨參八物湯	10	14	藿香正氣散	14	7.5
人蔘黃芪附子湯	8	14	八物君子湯	10	9
香砂養胃湯	13	11	白何烏君子湯	10	9
薑朮破積湯	15	13	十全大補湯	12	10
香砂理中湯	9	12	獨參八物湯	10	18
獨參理中湯	7	13	香附子八物湯	10	11
獨參官桂理中湯	8	15	桂枝半夏生薑湯	7	11
獨參附子理中湯	8	15	香砂養胃湯	13	11
獨參蘇葉理中湯	8	15	赤白何烏寬中湯	9	8
芎歸蔥蘇理中湯	12	14	十二味寬中湯	13	10
桂附藿陳理中湯	11	15	人蔘白何烏寬中湯	9	8
白何烏理中湯	10	15	當歸白何烏寬中湯	9	8
人蔘黨參穀湯	9	11	蒜蜜湯	13	8
獨參良朋湯	6	15	人蔘陳皮湯	5	13
三十五味飲	35	13.4	人蔘吳茱萸湯	6	19
평균	11.1	12.3	官桂附子理中湯	8	13-14
			吳茱萸附子理中湯	11	15-16
			白何烏附子理中湯	8	13
			白何首烏理中湯	7	12
			평균	9.5	11.6

* : 총분량은 錢數가 기술된 약물만 합하여 生薑三片, 大棗二枚 등의 분량표시가 틀린 것은 계산하지 않았고, 新定方중에서 湯劑의 형태가 아니거나 分量을 표시가 힘든 甲午本 鷄參膏, 山人甘薯飲, 巴豆丹의 세 藥方과 辛丑本 鷄參膏, 巴豆丹의 두 藥方은 제외하고 平均을 구하였다. 藥物分量에서 “一錢 或 二錢”과 같을 경우 一錢五分으로 계산하였다.

2) 少陽人 新定方の 藥物數와 總分量의 比較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藥物數의 平均은 8.2개이고, 辛丑本 少陽人 新定方 藥物數의 9.1개로 0.9개의 차이가 있다.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平均藥物의 分量은 13.4錢이고, 辛丑本 少陽人 新定方 藥物分量은 14.36錢으로 0.9錢의 차이가 있다.

少陽人 新定方중에서 湯劑의 형태가 아니거나 分量이 매우 적은 甲午本의 靈砂散, 白虎膏, 朱砂益元散, 甘遂散의 네 藥方과 辛丑本 朱砂益元散, 甘遂天一丸의 두 藥方은 제외하고 平均 藥物數와 藥物分量을 계산하였다.

藥物分量이 “一錢 或 二錢”과 같은 경우 平均을 내어 一錢五分으로 계산하였다(표 7).

표 7. 少陽人 新定方 각각의 藥物數와 藥物分量

甲午本(19)	藥物數	總分量(錢)	辛丑本(17)	藥物數	總分量(錢)
荊防敗毒散	11	11	荊防敗毒散	10	10
防風通聖散	12	10	荊防導赤散	9	13
千金導赤散	6	14	荊防瀉白散	9	13
柴胡瓜蒌湯	10	15	豬苓車前子湯	10	13
柴胡四苓湯	8	12	滑石苦參湯	10	14
白虎湯	3	10	獨活地黃湯	7	12
錦上添花白虎湯	5	14	荊防地黃湯	9	13
渡海白虎湯	8	16	十二味地黃湯	12	17
豬苓白虎湯	7	14	地黃白虎湯	5	13-18
陽毒白虎湯	11	14	陽毒白虎湯	6	14-19
七味豬苓湯	7	14	涼膈散火湯	9	12
八味豬苓湯	8	15	忍冬藤地骨皮湯	15	20
七味苦參湯	7	14	熟地黃苦參湯	7	12
八味苦參湯	8	15	木通大安湯	9	18
水火既濟湯	13	13	黃連清腸湯	9	15
清涼散火湯	10	13			
木通大安湯	6	15			
黃連清腸湯	8	13			
평균	8.22	13.44	평균	9.1	14.3

※ : 少陽人 新定方중에서 湯劑로 할수 없고 分量이 매우 적은 甲午本의 靈砂散, 白虎膏, 朱砂益元散, 甘遂散의 네 藥方과 辛丑本 朱砂益元散, 甘遂天一丸의 두 藥方은 제외하였다.

3) 太陰人 新定方の 藥物數와 總分量의 比較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藥物數의 平均은 8.1개이고, 辛丑本 太陰人 新定方 藥物數의 7.1개로 1.0개의 차이가 있다.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平均藥物의 分量은 12.1錢이고, 辛丑本 太陰人 新定方 藥物分量은 11.2錢으로 0.9錢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總分量은 錢數가 기술된 약물만 합하였고, 乾栗, 蟾蜍 등 분량표시가 힘든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

湯劑의 형태가 아니거나 分量이 매우 적은 甲午本의 黃栗五味子膏, 牛黃山藥元, 熊膽散, 麝香散과 辛丑本의 拱辰黑元丹, 乾栗蟾蜍湯, 瓜蒂散, 熊膽散, 麝香散, 石菖蒲遠志散, 麥門冬遠志散, 牛黃清心元은 제외하였다(표 8).

표 8. 太陰人 新定方 각각의 藥物數와 藥物分量

甲午本(17)	藥物數	藥物分量(錢)	辛丑本(24)	藥物數	藥物分量(錢)
麻黃發表湯	7	10	太陰調胃湯	8	13
麻黃定喘湯	9	13	葛根解肌湯	6	9
葛根解肌湯	8	11	調胃升清湯	12	16.5
升麻開腦湯	13	15	清心蓮子湯	12	13.3
天門冬潤肺湯	10	13	麻黃定喘湯	9	10.5
鹿茸潤肺湯	11	14	麻黃定痛湯	11	15
鹿茸大造湯	9	13	熱多寒少湯	7	12
桔梗生脈散	7	13	寒多熱少湯	8	10
清心山藥湯	12	14.5	葛根承氣湯	6	11
清心蓮子湯	12	14.5	葛根大承氣湯	7	13
皂角大黃湯	6	9	葛根小承氣湯	7	12
浮萍大黃湯	3	6	調理肺元湯	6	9
桔梗樗根皮湯	2	8	麻黃發表湯	5	7.5
黃栗樗根皮湯	4	15	補肺元湯	3	6
평균	8.1	12.1	鹿茸大補湯	8	10-14
			皂角大黃湯	4	8
			葛根浮萍湯	6	9
			乾栗樗根皮湯	2	13-15
			평균	7.1	11.2

※ : 총분량은 錢數가 기술된 약물만 합한 것이다. 湯劑의 형태가 아니거나 분량이 매우 적은 甲午本의 黃栗五味子膏, 牛黃山藥元, 熊膽散, 麝香散과 辛丑本의 拱辰黑元丹, 乾栗蟾蜍湯, 瓜蒂散, 熊膽散, 麝香散, 石菖蒲遠志散, 麥門冬遠志散, 牛黃清心元은 제외하였다.

4) 太陽人 新定方의 藥物數와 總分量의 比較

太陽人 新定方은 고쳐지지 않은 藥方으로 平均藥物數는 6.5개이고, 平均藥物分量은 14.5錢이다(표 9).

표 9. 太陽人 新定方 각각의 藥物數와 藥物分量

辛丑本(2)	藥物數	藥物分量
五加皮壯脊湯	7	11
獼猴藤植腸湯	8	18
平均	7.5개	14.5錢

5) 全體 新定方의 藥物數와 分量의 比較

甲午本과 辛丑本을 藥物數와 藥物分量은 比較¹⁸⁾ 해 보면,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고쳐지면서 全體의 으로 藥物數는 9.3개에서 8.7개로 조금 줄었고, 藥物分量은 12.7錢에서 12.1錢으로 조금 줄었다(표 10, 11 과 그림 2, 3).

體質別로 살펴보면 少陰人과 太陰人 新定方에서는 藥物數와 藥物分量이 줄어들었으나, 少陽人 藥方에서는 藥物數와 藥物分量이 늘어났으며, 太陽人 藥方은 고쳐지지 않았기에 比較할수 없었다.

표 10. 體質別 新定方의 平均 藥物數 比較

	甲午本	辛丑本
少陰人 藥物數	11.1개	9.5개
少陽人 藥物數	8.2개	9.1개
太陰人 藥物數	8.1개	7.1개
太陽人 藥物數	7.5개	
總 藥物數	9.3개	8.7개

※ : 辛丑本 太陽人 藥方은 甲午本의 내용이라 辛丑本 太陽人 藥物數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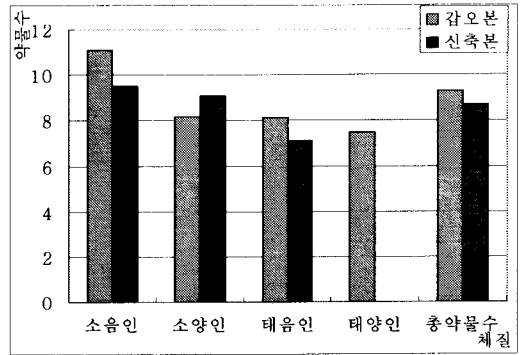


그림 2.

표 11. 體質別 新定方의 平均 藥物分量 比較

	甲午本	辛丑本
少陰人 藥物分量	12.3錢	11.6錢
少陽人 藥物分量	13.4錢	14.3錢
太陰人 藥物分量	12.1錢	11.2錢
太陽人 藥物分量	14.5錢	
總 藥物分量	12.7錢	12.1錢

※ : 辛丑本 太陽人 藥方은 甲午本의 내용이라 辛丑本 太陽人 藥物分量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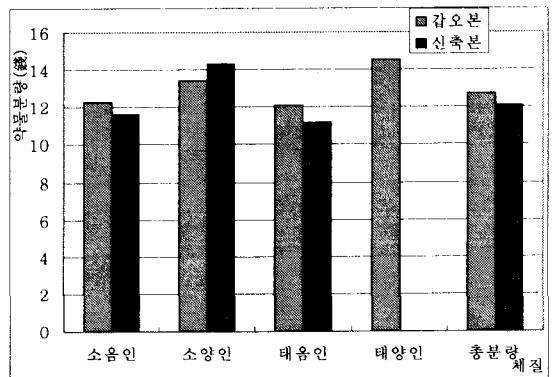


그림 3.

N.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處方에 관한 研究

1. 經驗藥方의 分析

甲午抄錄本의 目次와 本文의 내용을 따르자면 太陰

18) 總 藥物數와 藥物分量에서 太陽人 藥方은 辛丑本에서 기술되나 甲午本의 것이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人論과 太陽人論의 經驗藥方은 甲午本에 존재하나 庚子本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고, 少陰人論과 少陽人論의 經驗藥方은 甲午本과 庚子本에 모두 존재하며 庚子本의 내용은 甲午本과 同一하다고 기술되었다.

따라서 經驗藥方은 甲午本의 내용으로 庚子本에서 卷之一과 같이 改抄되지 않고 그대로 옮겨졌으며 辛丑本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經驗藥方에서 東武는 甲午本의 病證論의 今考更定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既存의 藥方에서 他體質藥物 및 非體質藥物을 삭제하고 해당 體質藥物 몇 가지를 추가하게 된다.

1) 少陰人 經驗藥方

① 少陰人 傷寒論 藥方

少陰人 傷寒論 經驗藥方은 桂枝湯, 理中湯, 薑附湯, 四順理中湯, 人蔘桂枝湯, 四逆湯, 厚朴半夏湯, 半夏散, 赤石脂禹餘糧湯, 附子湯, 麻黃附子甘草湯, 麻黃附子細辛湯, 當歸四逆湯,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甘草瀉心湯, 茵陳蒿湯, 抵當湯, 桃仁承氣湯, 麻仁丸, 蜜導法, 大承氣湯, 小承氣湯의 23藥方이다.

『東武遺稿鬚編』에서 桂枝湯이 少陰人 發表藥으로써 用例¹⁹⁾가 기술된다.

草本卷에서는 少陰人 傷寒方에 대한 藥物構成과 主治證에 대한 언급은 없다.

甲午本 少陰人 病證論에서 既存醫書を 引用한 條文中에서 傷寒論 經驗藥方 23藥方은 모두 언급되며, 辛丑本에서는 半夏散²⁰⁾과 관련된 條文을 제외한 22藥方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기술된다.

19) 李濟馬,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鬚編』. 海東出版社. 1999 : 169. 用例 1. ‘少陰 發表 輕則藿香川芎蘇葉蔥白 重則桂枝湯’ : 185. 用例 2. ‘凡少陰人 尋常外感 則惡寒發熱肢節痛 二三日則起 若過四五日 則此傷寒症也 七日不汗則八九十日必死 始病四五日 肢節痛有泄瀉者 凶症也 理中湯症也 四五日無泄瀉而惡寒肢節 則桂枝湯二三貼 連服則效可也 二三四五日 通用藥 則香蘇散藿香正氣散不換金正氣散之類也 單方 則蘇葉參錢蔥白十介生薑三錢用之也’ : 196. 用例 3. ‘少陰人不泄瀉 則其病日盡則自愈 少陽人大小便快 則其病日進則自愈 然比如大敵臨境 雖無至於覆軍殺將 不可不嚴爲備之也 所以少陰人桂枝湯 少陽人白虎湯四苓散導赤散 不可廢也’

20) 半夏散은 甲午本 少陰人 裏病論 39條 “少陰病 咽中痛 宜半夏散”에서 기술되었으나 辛丑本에서는 삭제된 條文의 藥方이다.

構成藥物의 特徵을 살펴보면 桂枝湯, 理中湯, 薑附湯, 四順理中湯, 人蔘桂枝湯, 厚朴半夏湯, 半夏散, 四逆湯, 赤石脂禹餘糧湯의 9藥方은 少陰人 藥物로만 구성되었고, 나머지 附子湯, 麻黃附子甘草湯, 麻黃附子細辛湯, 當歸四逆湯,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甘草瀉心湯, 茵陳蒿湯, 抵當湯, 桃仁承氣湯, 麻仁丸, 蜜導法, 大承氣湯, 小承氣湯의 14藥方은 他 體質의 藥物과 혼합되어 있으며, 今考更定の 설명이 붙은 藥方은 찾아 볼 수 없다.

『東醫四象新編』에서 기술하고 있는 少陰人 傷寒方은 桂枝湯, 理中湯, 薑附湯, 四逆湯, 赤石脂禹餘糧湯의 5藥方으로 모두 少陰人 藥物로만 구성된 藥方들이고, 他 體質 藥物과 혼합되어 있는 少陰人 傷寒方은 없다(표 12).

② 少陰人 宋元明 經驗藥方

少陰人 宋元明 經驗藥方은 十全大補湯, 補中益氣湯, 香砂六君子湯, 木香順氣散, 蘇合香元, 藿香正氣散, 香蘇散, 桂枝附子湯, 茵陳四逆湯, 茵陳附子湯, 茵陳橘皮湯, 三味參萸湯, 霹靂散, 溫白元, 瘴疽丸, 三稜消積丸, 秘方化滯丸, 三物白散, 如意丹의 19藥方이다.

『東武遺稿鬚編』에서 藿香正氣散²¹⁾, 補中益氣湯²²⁾, 十全大補湯²³⁾, 香蘇散²⁴⁾의 4藥方에 대한 用例가 기술된다.

21) 『東武遺稿鬚編』. 前掲書 : 185. 凡少陰人 尋常外感 則惡寒發熱肢節痛 二三日則起 若過四五日 則此傷寒症也 七日不汗則八九十日必死 始病四五日 肢節痛有泄瀉者 凶症也 理中湯症也 四五日無泄瀉而惡寒肢節 則桂枝湯二三貼 連服則效可也 二三四五日 通用藥 則香蘇散藿香正氣散不換金正氣散之類也 單方 則蘇葉參錢蔥白十介生薑三錢用之也 : 186. 傷食濕霍亂 則吐瀉 而自發吐 則危也 人中發汗 則十全免危也 藿香正氣散 加香薷益母草三錢調理也

22) 『東武遺稿鬚編』. 上掲書 : 187. 內傷 亦猶傷寒 而過七日不危 過十日不愈面色猶血和色 飲食無味而亦強食 此補中益氣湯症也 蓋此症 思慮酒色積傷之餘 氣津力竭 悔過知非 而傷已極矣 卒難敦復之故也 或數三十日 或四五朔呻吟之疾也 或一二年 不愈者 俗謂之私崇病也 宜鹿茸血人參清密白朮鷄肉當歸項赤蛇之類 峻補而求清思慮禁酒色 則輕者一年內身完 重者三四年內身完

23) 『東武遺稿鬚編』. 上掲書 : 170. 少陰人 泄瀉 附子理中湯也 或十全大補湯加肉苳蔻破古紙也

24) 『東武遺稿鬚編』. 上掲書 : 185. 凡少陰人 尋常外感 則惡寒發熱肢節痛 二三日則起 若過四五日 則此傷寒症也 七日不汗則八九十日必死 始病四五日 肢節痛有泄瀉者 凶症也 理中湯症也 四五日無泄瀉而惡寒肢節 則桂枝湯二三貼 連服則效可也 二三四五日 通用藥 則香蘇散藿香正氣散不換金正氣散之類也 單方 則蘇葉參錢蔥白十介生薑三錢用之也

표 12. 少陰人 傷寒論의 藥方의 比較

經驗藥方	草本卷 記錄	甲午本 用例	辛丑本 用例	體質藥 物混用	今考更 定有無	四象新 編記錄
桂枝湯	×	○	○	×	×	○
理中湯	×	○	○	×	×	○
薑附湯	×	○	○	×	×	○
四順理中湯	×	○	○	×	×	×
人蔘桂枝湯	×	○	○	×	×	×
四逆湯	×	○	○	×	×	○
厚朴半夏湯	×	○	○	×	×	×
半夏散	×	○	×	×	×	×
赤石脂禹餘糧湯	×	○	○	×	×	○
附子湯	×	○	○	○	×	×
麻黃附子甘草湯	×	○	○	○	×	×
麻黃附子細辛湯	×	○	○	○	×	×
當歸四逆湯	×	○	○	○	×	×
半夏瀉心湯	×	○	○	○	×	×
生薑瀉心湯	×	○	○	○	×	×
甘草瀉心湯	×	○	○	○	×	×
茵陳蒿湯	×	○	○	○	×	×
抵當湯	×	○	○	○	×	×
桃仁承氣湯	×	○	○	○	×	×
麻仁丸	×	○	○	○	×	×
蜜導法	×	○	○	○	×	×
大承氣湯	×	○	○	○	×	×
小承氣湯	×	○	○	○	×	×

<보기>

- :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 :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草本卷에서 十全大補湯, 補中益氣湯, 蘇合香元, 藿香正氣散, 香蘇散의 5藥方에 대한 藥物構成과 主治證이 기술되어 있다.

甲午本과 辛丑本의 病證論中에서 經驗藥方의 절반 정도만 既存 醫書를 인용한 條文중에 있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用例가 없다.

構成藥物의 特徵을 보면 少陰人 藥物로만 구성된 木香順氣散, 香蘇散, 桂枝附子湯, 茵陳四逆湯, 茵陳附子湯, 茵陳橘皮湯, 三味參萸湯, 霹靂散, 三稜消積丸의 9藥方은 모두 『東醫四象新編』에서 기술되었고, 그 외 타 體質藥物이 포함된 十全大補湯, 補中益

氣湯, 香砂六君子湯, 蘇合香元, 藿香正氣散, 溫白元, 瘴疽丸, 秘方化滯丸, 三物白散, 如意丹의 10藥方은 『東醫四象新編』에 藥方의 삭제, 既存藥方 수록, 他 體質藥物 삭제 후 수록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술되었다.

他 體質藥物이 혼합된 10藥方중에서 十全大補湯 補中益氣湯 香砂六君子湯 蘇合香元 藿香正氣散의 5藥方은 東武가 今考更定하여 他 體質藥物을 삭제하고, 몇 藥物을 추가하였는데 이 중에 十全大補湯, 補中益氣湯과 蘇合香元의 3藥方은 今考更定을 따라서 『東醫四象新編』에 기술되었고, 今考更定하지 않은 藥方중에 溫白元, 瘴疽丸, 如意丹의 3藥方은 『東醫四象新編』에서 他 體質藥物을 삭제한 藥物構成이 기술되었다(표13).

표 13. 少陰人 宋元明 藥方의 比較

經驗藥方	草本卷 記載	甲午本 用例	辛丑本 用例	體質藥 物混用	今考更 定有無	四象新 編記載
十全大補湯	○	×	×	○	○	○
補中益氣湯	○	×	×	○	○	○
香砂六君子湯	×	×	△	○	○	○
木香順氣散	×	×	×	×	×	○
蘇合香元	○	×	△	○	○	○
藿香正氣散	○	○	○	○	○	×
香蘇散	○	○	○	×	×	○
桂枝附子湯	×	○	○	×	×	○
茵陳四逆湯	×	△	△	×	×	○
茵陳附子湯	×	○	○	×	×	○
茵陳橘皮湯	×	△	△	×	×	○
三味參萸湯	×	○	○	×	×	○
霹靂散	×	○	○	×	×	○
溫白元	×	×	×	○	×	○
瘴疽丸	×	○	○	○	×	○
三稜消積丸	×	×	×	×	×	○
秘方化滯丸	×	×	×	○	×	○
三物白散	×	○	○	○	×	○
如意丹	×	×	×	○	×	○

<보기>

- :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 :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 : 既存醫書의 條文이 아닌 東武의 “今考更定” “論曰” 등에 언급된 경우이다

2) 少陽人 經驗藥方

① 少陽人 傷寒論 藥方

少陽人 傷寒論 經驗方은 白虎湯, 猪苓湯, 五苓散, 小柴胡湯, 大青龍湯, 桂婢各半湯, 小陷胸湯, 大陷胸湯, 十棗湯, 腎氣丸의 10藥方이다.

『東武遺稿續編』에서 傷寒陽證에 대한 白虎湯, 四苓散의 用例²⁵⁾가 있다.

草本卷에는 白虎湯과 五苓散의 藥物構成과 主治證이 기술된다.

甲午本과 辛丑本 病證論에서 10藥方의 用例가 모두 있다.

『東醫四象新編』에서는 白虎湯, 猪苓湯, 五苓散, 腎氣丸의 4藥方이 기술되었다.

構成藥物的 특징을 살펴보면 少陽人 藥物로만 구성된 藥方은 없으며 『東醫四象新編』의 經驗方 역시 他 體質 藥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腎氣丸은 甲午本에서 少陽人 消渴證에서 언급되었으나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해당되는 病證論中の 條文은 太陰人 燥熱證으로 옮겨갔지만 經驗藥方은 甲午本의 내용이기 辛丑本에서 經驗方은 少陽人論에 있고 관련된 病證論 條文은 太陰人論에 있게 되었다(표 14).

표 14. 少陽人 傷寒論 藥方의 比較

經驗藥方	草本卷 記載	甲午本 用例	辛丑本 用例	體質藥 物混用	今考更 定有無	四象新 編記載
白虎湯	○	○	○	○	×	○
猪苓湯	×	○	○	○	×	○
五苓散	○	○	○	○	×	○
小柴胡湯	×	○	○	○	×	×
大青龍湯	×	○	○	○	×	×
桂婢各半湯	×	○	○	○	×	×
小陷胸湯	×	○	○	○	×	×
大陷胸湯	×	○	○	○	×	×
十棗湯	×	○	○	○	×	×
腎氣丸	×	○	○	○	×	○

<보기>

○ :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5) 『東武遺稿續編』. 上揭書 : 196. 少陰人不泄瀉 則其病日盡則自愈 少陽人大小便快 則其病日進則自愈 然比如大敵臨境 雖無至於覆軍殺將 不可不嚴爲備之也 所以少陰人桂枝湯 少陽人白虎湯四苓散導赤散 不可廢也

② 少陽人 元明 經驗藥方

少陽人 元明 經驗方은 涼膈散, 黃連猪肚丸, 六味地黃湯, 生熟地黃丸, 導赤湯, 荊防敗毒散, 肥兒丸, 消毒飲, 水銀熏鼻方의 9藥方이다.

『東武遺稿續編』에서 涼膈散²⁶⁾, 六味地黃湯²⁷⁾, 導赤散²⁸⁾, 荊防敗毒散²⁹⁾, 肥兒丸³⁰⁾의 5藥方에 대한 用例가 기술되었다.

草本卷에는 敗毒散, 六味地黃湯, 導赤散, 肥兒丸의 4藥方에 대한 藥物構成과 主治證이 기술된다.

少陽人 病證論中에서 六味地黃湯과 黃連猪肚丸의 2藥方만 既存醫書에서 引用한 條文이 언급되었으며, 涼膈散, 荊防敗毒散, 水銀熏鼻方의 3藥方은 辛丑本에서 東武의 생각에 해당하는 “論曰” 등에서 언급되었다.

構成藥物的 特徵을 살펴보면 生熟地黃丸만 少陽人 藥物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8藥方은 他 體質藥物과 혼합되어 있다. 生熟地黃丸과 水銀熏鼻方을 제외한 7藥方에서 東武는 今考更定하여 他 體質

26) 『東武遺稿續編』. 上揭書 : 208. 少陽大人 脈洪實而數 或咽喉痛 或屢生瘰癧 頭面胸膈 風熱大盛 則以涼膈散 或防風通聖散 預防之可也 若緩置之 則恐成他病 以瀆死也

27) 『東武遺稿續編』. 上揭書 : 199. 虛勞症 六味湯 加知母黃柏 或三四十貼 或石花常服 或童便常服 可當六味湯數百貼吐血與虛勞同 而六味地黃湯 加生地黃五錢 牡丹皮二錢 尤加黃連梔子也 浮腫脹滿 以甘遂芫花下水 以久味湯 加車前子 調理 或輕粉丸 少陽太陰人浮腫 比太陽少陰人浮腫 輕也(六味湯의 用例는 p.199와 170의 少陽人 泄瀉 益元散也 或四苓散 加柴胡二錢也 或六味湯 倍山茱萸也에서 볼 수 있다)

28) 『東武遺稿續編』. 上揭書 : 196. 少陰人不泄瀉 則其病日盡則自愈 少陽人大小便快 則其病日進則自愈 然比如大敵臨境 雖無至於覆軍殺將 不可不嚴爲備之也 所以少陰人桂枝湯 少陽人白虎湯四苓散導赤散 不可廢也 : 207. 大小便不通 大便不通 則天一丸妙也 小便不通 則猪苓澤瀉赤茯苓各參錢 春溫加木通 夏熱加滑石可也 大小便不通 雖是二症 而大便通 則小便自通也 病輕者 先通小便 四苓散 導赤散主之 病重者 先通大便 甘遂芫花主之

29) 『東武遺稿續編』. 上揭書 : 194. 傷寒陽證 凡少陽人尋常外感 荊防敗毒散 或 九味羌活湯 二貼連服 則二三日即起 若在再五六日不起 則此傷寒症也 勿論 陰人陽人 不觀勢而用藥 則可生者多死 此古人重傷寒而屢立論者 良有以也.

30) 『東武遺稿續編』. 上揭書 : 207. 少陽小兒 身脚瘦而肚腸大者 此疳病也 肥兒丸本方去麥而用之 可急治也 若緩置而不疑則恐成他病 而瀆死也

藥物을 삭제하였다.

『東醫四象新編』에서는 黃連豬肚丸과 荊防敗毒散을 제외한 7藥方이 기술되었는데, 모두 他 體質藥物이 삭제된 藥方이다. 少陽人 經驗藥方은 少陰人과 달리 他 體質藥物을 삭제해 놓기만 했지 추가하지는 않았다(표 15).

표 15. 少陽人 元明 藥方の 比較

經驗藥方	草本卷 記載	甲午本 用例	辛丑本 用例	體質藥 物混用	今考更 定有無	四象新 編記載
涼膈散	×	×	△	○	○	○
黃連豬肚丸	×	○	○	○	○	×
六味地黃湯	○	○	○	○	○	○
生熟地黃丸	×	×	×	×	×	○
導赤湯	○	×	×	○	○	○
荊防敗毒散	○	×	△	○	○	×
肥兒丸	○	×	×	○	○	○
消毒飲	×	×	×	○	○	○
水銀熏鼻方	×	×	△	○	×	○

<보기>

- :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 :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 : 既存醫書의 條文이 아닌 東武의 “今考更定” “論曰” 등에 언급된 경우이다

3) 太陰人 經驗藥方

① 太陰人 傷寒論 藥方

太陰人 傷寒論 經驗藥方은 麻黃湯, 桂麻各半湯, 調胃承氣湯, 大柴胡湯의 4藥方이다.

『東武遺稿鬚編』에서 麻黃湯의 用例³¹⁾만 기술되었다.

『草本卷』에서는 藥物構成과 主治證이 기술된 藥方은 없다.

大柴胡湯은 甲午本과 辛丑本の 病證論중에서 用例가 기술되지 않은 藥方이고, 桂麻各半湯은 甲午本과 辛丑本の 少陰人論과 少陽人論에서 用例가 기술되고 太陰人論에서는 藥物構成과 主治證만 기술되

31) 『東武遺稿鬚編』. 上揭書 : 212. 太陰人 惡寒嘔逆而有數三日內 吐痰而起者此則尋常外感 宜麻黃湯 此與少陰人藿香正氣散 少陽人荊防敗毒散症一般 熊膽症 則與少陰之泄瀉 少陽之大便不通一般 是故 少陰之憂 在於泄瀉 少陽之憂 在於大便不通 太陰之憂 在於頭面不發汗 頂上汗出與不出也

었다.

東武는 傷寒方의 藥物에 대해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麻黃湯에서만 病證論 中에서 타 體質藥物인 甘草와 桂枝를 빼고 써야 한다³²⁾고 설명하였다.

構成藥物의 特徵을 보면 4藥方 모두 他 體質藥物과 혼합된 형태로 되어 있으며, 『東醫四象新編』에서 기술된 藥方은 없다(표 16).

표 16. 太陰人 傷寒論 藥方の 比較

經驗藥方	草本卷 記載	甲午本 用例	辛丑本 用例	體質藥 物混用	今考更 定有無	四象新 編記載
麻黃湯	×	○	○	○	×	×
桂麻各半湯	×	▽	▽	○	×	×
調胃承氣湯	×	○	○	○	×	×
大柴胡湯	×	×	×	○	×	×

<보기>

- :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 :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 : 桂麻各半湯은 甲午本과 辛丑本の 少陰人論과 少陽人論에서 用例가 기술되고 太陰人論에서는 藥物構成과 主治證만 기술되었다.

② 唐宋明 經驗藥方

唐宋明 經驗藥方은 石菖蒲遠志散, 調中湯, 黑奴丸, 生脈散, 樗根皮丸, 二聖救苦丸, 葛根解肌湯, 牛黃清心丸, 麻黃定喘湯의 9藥方이다.

『東武遺稿鬚編』에서는 牛黃清心丸의 用例³³⁾가 기술되었다.

『草本卷』에서는 藥物構成과 主治證이 기술된 藥方은 없다.

太陰人 病證論中에서 生脈散, 石菖蒲遠志散, 樗根皮丸, 調中丸의 4藥方은 用例가 없다.

32) 辛丑本 12-2條. “論曰 … 麻黃湯 非不當用 而桂枝甘草 皆爲蠱材 此證 當用麻黃發表湯” 甲午本 太陰人表病論 2條 今考更定 此證 麻黃湯 非不當用 而桂枝甘草 皆爲蠱材 欲收全功 此證 當用麻黃發表湯 傷寒頭痛身疼腰痛 以至牽連百骨節俱痛者 卽太陰人 外感表病輕證也

33) 『東武遺稿鬚編』. 前揭書 : 175. 卒中風藥 : 太陰人 卒中風 牛黃清心丸 或單牛黃 或菖蒲遠志各一錢 爲末服之 : 216. 太陰人危症 中風昏冒也 牛黃清心丸 惑單牛黃 惑瓜蒂吐之 頂上有汗 而次次之於背 則快免危也 然太陰人汗頂上始發 而數三日內 不能至背也

黑奴丸과 葛根解肌湯은 既存醫書를 인용한 條文이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기술되었다.

東武의 생각을 담긴 “論曰” 등에서 甲午本은 二聖救苦丸, 辛丑本은 二聖救苦丸, 牛黃清心丸, 麻黃定喘湯이 기술되었다

構成藥物의 特徵을 살펴보면 石菖蒲遠志散, 樗根皮丸, 二聖救苦丸의 3藥方은 太陰人 藥物로만 구성되었고, 調中丸, 黑奴丸, 生脈散, 葛根解肌湯, 牛黃清心丸, 麻黃定喘湯의 6藥方은 他 體質藥物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모두 今考更定하여 他 體質藥物을 삭제하였다.

『東醫四象新編』에서는 石菖蒲遠志散, 黑奴丸, 生脈散, 二聖救苦丸의 4藥方이 他 體質藥物을 삭제하고 기술되었다(표 17).

표 17. 太陰人 唐宋明 藥方의 比較

經驗藥方	草本卷 記載	甲午本 用例	辛丑本 用例	體質藥 物混用	今考更 定有無	四象新 編記載
石菖蒲遠志散	×	×	×	×	×	○
調中湯	×	×	×	○	○	×
黑奴丸	×	○	○	○	○	○
生脈散	×	×	×	○	○	○
樗根皮丸	×	×	×	×	×	×
二聖救苦丸	×	△	△	×	×	○
葛根解肌湯	×	○	○	○	○	×
牛黃清心丸	○	×	△	○	○	×
麻黃定喘湯	×	×	△	○	○	×

<보기>

○ :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 既存醫書의 條文이 아닌 東武의 “今考更定” “論曰” 등에 언급된 경우이다

4) 太陽人 經驗藥方

太陽人의 經驗藥方에서는 藥方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으며 單方藥물 12種(五加皮, 松節, 木苳, 葡萄根, 獼猴桃, 蘆根, 蚌蛤, 鯽魚, 蓴和鯽魚, 蕎麥, 杵頭糠, 螃蛤)에 대한 언급뿐이다.

2. 新定方중에서 用例가 없는 藥方들

甲午本 新定方 中 病證論內에서는 用例가 없는 경우는 총 13藥方이다.

少陰人 藥方중에서 獨參理中湯, 白何烏理中湯, 人蔘罌粟殼湯, 獨參良崩湯, 鷄參膏, 三十五味飲, 山人甘藷陰의 7藥方이다.

少陽人 藥方중에서 白虎膏, 朱砂益元散의 2藥方이다.

太陰人 藥方중에서 麻黃定喘湯, 鹿茸大造湯, 浮萍大黃湯, 牛黃山藥元의 4藥方이다.

1) 主治證이 있으면서 用例가 없는 藥方들

『病證論』 中에서 用例가 없는 13藥方 中에서 人蔘罌粟殼湯, 獨參良崩湯, 鷄參膏, 三十五味飲, 山人甘藷飲, 朱砂益元散의 6藥方은 新定藥方에서 主治證이 기술되었다.

이 中에서 人蔘罌粟殼湯, 獨參良崩湯, 鷄參膏, 朱砂益元散의 4藥方은 『東醫四象新編』과 主治證이 일치하고 있으며, 三十五味飲과 山人甘藷飲의 2藥方은 『東醫四象新編』에 없다(표 18).

표 18. 甲午本의 病證論중 用例는 없으나 新定藥方중 主治證이 있는 藥方의 比較

分類	用例가 없는 甲午本 藥方	『東醫壽世保元』 新定藥方의 主治證	『東醫四象新編』 의 主治證
少陰人 新定方	人蔘罌粟殼湯	痢疾	痢疾
	獨參良崩湯	小兒泄瀉慢驚風	小兒泄瀉及慢驚風
	鷄參膏	瘧疾痢疾	瘧疾病疾
	三十五味飲	浮腫	(藥方 無)
	山人甘藷陰	浮腫	(藥方 無)
少陽人 新定方	朱砂益元散	暑證	暑症

2) 主治證과 用例가 모두 없는 藥方들

『病證論』 中의 用例가 없는 13藥方중에서 新定藥方의 主治證이 없는 藥方은 같이 獨參理中湯, 白何烏理中湯, 白虎膏, 麻黃定喘湯, 鹿茸大造湯, 浮萍大黃湯, 牛黃山藥元의 7藥方이다.

『東醫四象新編』의 麻黃定喘湯은 辛丑本 藥方으로 甲午本 藥方은 없다. 麻黃定喘湯을 제외한 나머지 6藥方은 『東醫四象新編』에서 모두 主治證이 기술되어 있다. 白何烏理中湯은 『東醫四象新編』에서 三白理中湯이란 藥方名을 사용하였다(표19).

표 19. 甲午本の 病證論중 用例와 新定藥方중 主治證이 모두 없는 藥方의 比較

區分	用例가 없는 甲午本 藥方	「東醫壽世保元」 新定藥方의 主治證	「東醫四象新編」의 主治證
少陰方	獨蔘理中湯	×	胃寒蛔上
	白何烏理中湯	×	內傷泄瀉(三白理中湯)
少陽方	白虎膏	×	毒腫風症
太陰方	麻黃定喘湯	×	(藥方無)
	鹿茸大造湯	×	氣虛補元
	浮萍大黃湯	×	傷寒表裏症大便不通急
	牛黃山藥元	×	中風不語

3. 辛丑本 病證論 中の 甲午本 藥方

甲午本이 고쳐지면서 매우 많은 條文들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쓰여진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病證論」內에서 몇몇 新定方 역시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옮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辛丑本の「病證論」중에서 甲午本 藥方이라고 추정되는 藥方들을 따로 골라내었다.

이 중에는 甲午本과 辛丑本の 同名의 藥方은 있으나, 藥物構成이 동일한 藥方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는 辛丑本 條文과 甲午本 條文이 같은 것을 중심으로 東武의 新藥方을 살펴본다.

(1) 藿香正氣散

藿香正氣散과 관련된 甲午本 少陰人 泛論 1條³⁴⁾는 辛丑本 少陰人 泛論에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다. 따라서 이 藿香正氣散은 甲午本 藥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辛丑本에 同名藥方이 나오지만 藥物構成이 다르다.

(2) 香砂養胃湯

香砂養胃湯과 관련된 甲午本 少陰人 泛論 1條³⁵⁾는 辛丑本 少陰人 泛論에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다. 따라서 이 香砂養胃湯은 甲午本 藥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辛丑本에 同名藥方이 나오지만 藥物構成이 다르다.

34) 甲午本 少陰人 泛論 1條. 論曰 … 是故 藿香正氣散 …

35) 甲午本 少陰人 泛論 1條. 論曰 … 是故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之證勢…

(3) 獨蔘八物湯

獨蔘八物湯과 관련된 甲午本 少陰人 泛論 1條³⁶⁾, 9條³⁷⁾, 11條³⁸⁾는 辛丑本 少陰人 泛論에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다. 따라서 이 獨蔘八物湯은 甲午本의 藥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辛丑本에서도 同名의 藥方이 나오지만 藥物構成이 다르다.

(4) 桂附理中湯

桂附理中湯과 관련된 甲午本 少陰人 泛論 1條³⁹⁾는 辛丑本 少陰人 泛論에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다. 따라서 이 桂附理中湯은 甲午本 藥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辛丑本 등에서 藥物構成은 알 수 없으며, 辛丑本의 官桂附子理中湯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 補中益氣湯

補中益氣湯과 관련된 甲午本 少陰人 泛論 9條⁴⁰⁾는 辛丑本 少陰人 泛論에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다. 따라서 이 補中益氣湯은 甲午本 藥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辛丑本에 同名藥方이 나오지만 藥物構成이 다르다.

(6) 獨蔘附子理中湯

獨蔘附子理中湯과 관련된 甲午本 少陰人 泛論 9條⁴¹⁾는 辛丑本 少陰人 泛論에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다. 따라서 이 獨蔘附子理中湯은 甲午本 藥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6) 甲午本 少陰人 泛論 1條. 論曰 發熱惡寒者…獨蔘八物湯 … 太行短節之病勢也 …

37) 甲午本 少陰人 泛論 9條. 陽明 太陽之危者 獨蔘八物湯 …

38) 甲午本 少陰人 泛論 11條. 少陰人 吐血 當用獨蔘八物湯 …

39) 甲午本 少陰人 泛論 1條. 論曰 … 桂附理中湯之證勢 太行短節之病勢也 …

40) 甲午本 少陰人 泛論 9條. 陽明 太陽之危者 獨蔘八物湯 補中益氣湯 …

41) 甲午本 少陰人 泛論 9條. … 少陰 太陰之危者 獨蔘附子理中湯 …

補遺方에 同名藥方이 나오지만 甲午本과 藥物構成이 일치하지 않는다.⁴²⁾

(7) 桂附藿陳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과 관련된 甲午本 少陰人 泛論 9條⁴³⁾는 辛丑本 少陰人 泛論에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다. 따라서 이 桂附藿陳理中湯은 甲午本 藥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補遺方에서 同名藥方이 나오는데 藥物構成이 甲午本과 일치한다.

(8) 獨參官桂理中湯

獨參官桂理中湯과 관련된 甲午本 少陰人 泛論 11條⁴⁴⁾는 辛丑本 少陰人 泛論에 고쳐지지 않고 옮겨진다. 따라서 이 獨參官桂理中湯은 甲午本の 藥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補遺方에서 同名藥方이 記述되며 甲午本과 藥物構成이 同一하다.

(9) 芎歸蔥蘇理中湯

芎歸蔥蘇理中湯과 관련된 甲午本 少陰人 泛論 15條⁴⁵⁾는 辛丑本 少陰人 泛論에 고쳐지지 않고 옮겨진다. 따라서 이 芎歸蔥蘇理中湯은 甲午本の 藥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辛丑本에서 同名藥方이 存在하지 않는다.

補遺方에서 同名藥方이 記述되며 甲午本과 藥物構成이 同一하다.

(10) 川芎桂枝湯

川芎桂枝湯과 관련된 甲午本 少陰人 泛論 25條⁴⁶⁾는 辛丑本 少陰人 泛論에 고쳐지지 않고 옮겨진다. 따라서 이 川芎桂枝湯은 甲午本の 藥方이라고 추정

할 수 있다.

辛丑本에서도 同名의 藥方이 나오지만 甲午本과 藥物構成이 다르다.

(11) 黃連清腸湯

黃連清腸湯과 관련된 甲午本 少陽人 泛論 27條는 辛丑本 少陽人 泛論⁴⁷⁾에 고쳐지지 않고 옮겨진다. 따라서 이 黃連清腸湯은 甲午本の 藥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辛丑本の 同名藥方과는 藥物構成이 다르다.

「東醫四象新編」에서는 甲午本の 黃連清腸湯을 柴胡清腸湯⁴⁸⁾라는 藥方名을 붙여 놓았다.

4. 病證論에서 藥方의 名稱만 존재하고, 藥物構成을 알 수 없는 藥方들

甲午本 條文중에서 辛丑本으로 改抄되면서 삭제된 條文중에서 東武의 藥方이라고 추정되며 藥物構成을 알 수 없는 藥方들이 다수 보이고 있다.

加減正氣散,⁴⁹⁾ 人參附子理中湯,⁵⁰⁾ 白何首烏附子理中湯,⁵¹⁾ 獨參黃芪八物湯,⁵²⁾ 六味地黃湯,⁵³⁾ 加減解肌湯⁵⁴⁾의 6藥方이 확인된다.

白何首烏附子理中湯은 辛丑本에서 藥物構成이 기

47) 甲午本 少陽人 泛論 27條. 少陽人痢疾 宜用 黃連清腸湯

48) 「東醫四象新編」. 前揭書: (諸方)16.

49) 甲午本 少陰人 表病論 5條. 今考更定 此證 當用桂枝湯 香蘇散 藿香正氣散 藥不可以不盡善擇美 則別爲增附 此證 發熱惡寒無汗者 當用芎歸香蘇散 加減正氣散 …

50) 甲午本 少陰人 裏病論 59條. 凡少陰人病 先觀其心而次察大便也 若其心耿耿忽忽 而大便又清水 則病在極危之地也 急用獨參附子理中湯 若人參附子理中湯 …

51) 甲午本 少陰人 裏病論 59條. 凡少陰人病 先觀其心而次察大便也 若其心耿耿忽忽 而大便又清水 則病在極危之地也 急用獨參附子理中湯 若人參附子理中湯勢在難得 則白何首烏附子理中湯 …

52) 甲午本 少陰人 裏病論 63條. 今考更定 但躁不煩者 卽躁無暫定也 此藏厥也 先躁後煩者 卽厥逆煩躁也 此陰盛隔陽也 陰盛隔陽 胃氣將絕之候也 發熱汗多 腎氣將絕之候也 發熱汗多之藥 獨參黃芪八物湯 …

53) 甲午本 少陽人 裏病論 31條.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陽人 陰虛火動 大腸熱骨蒸之病 而其病纔始而又輕故 可治也 不急治益危 當用水火既濟湯 七味苦參湯 七味猪苓湯 六味地黃湯 …

54) 甲午本 太陰人 表病論 15條. 今考更定 已上諸證 當用葛根解肌湯 黑奴丸 藥不可以不盡善擇美 則此證 當用加減解肌湯 …

42) 甲午本の 獨參附子理中湯은 官桂가 없고, 補遺方의 獨參附子理中湯은 官桂가 있다. (표 3 참조)

43) 甲午本 少陰人 泛論 9條. … 少陰 太陰之危者 獨參附子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

44) 甲午本 少陰人 泛論 11條. 少陰人 … 咽喉痛 當用獨參官桂理中湯

45) 甲午本 少陰人 泛論 12條. 嘗見 … 少陰人 食消 卽 … 當用 芎歸蔥蘇理中湯

46) 甲午本 少陰人 泛論 25條. 嘗見 … 少陰人 尋常間日 痛 惡寒時 用川芎桂枝湯 …

술되지만 甲午本에서 언급된 藥方과 藥物構成이 같은지는 알 수 없고, 六味地黃湯은 草本卷과 『東醫四象新編』에 藥物構成이 나오며, 加減正氣散, 人蔘附子理中湯, 獨蔘黃芪八物湯, 加減解肌湯은 藥物構成을 알 수 없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甲午本에서 藥物構成을 알 수 없는 病證論 중의 藥方

藥方名	비고
加減正氣散	甲午本 藿香正氣散의 變方으로 추정됨
人蔘附子理中湯	辛丑本에서 陰毒의 用例가 기술되나 藥物構成은 알 수 없음
白何首烏附子理中湯	辛丑本에 新定方에 藥物構成이 기술되나 실제 약물구성은 알 수 없음
獨蔘黃芪八物湯	알 수 없음
六味地黃湯	草本卷과 『東醫四象新編』의 六味地黃湯으로 추정됨
加減解肌湯	甲午本 葛根解肌湯의 變方으로 추정됨

5. 補遺方의 分析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에서 補遺方⁵⁵⁾이라고 하여 『東醫壽世保元』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藥方에 대해서 甲午本 藥方이라고 하여 9개⁵⁶⁾의 藥方(基本方 8方과 加味方 1方)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9개의 藥方を 갑오초록본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약방도 있지만 다른 약방도 있으며 없는 약방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甲午抄錄本과 同一한 藥物구성의 藥方

補遺方 9藥方中에서 甲午抄錄本과 同一한 藥方은 桂附藿陳理中湯, 獨蔘官桂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의 3 藥方이다.

(2) 甲午抄錄本과 다른 藥物구성의 藥方

補遺方 9藥方中에서 甲午抄錄本과 藥物構成이 다

른 것은 猪苓白虎湯과 獨蔘附子理中湯의 2藥方이다.

補遺方 獨蔘附子理中湯은 獨蔘官桂理中湯에서 附子を 加한 藥方⁵⁷⁾으로 官桂가 있는 藥方이다. 그러나 甲午抄錄本의 獨蔘附子理中湯은 獨蔘理中湯에 附子を 加한 藥方⁵⁸⁾으로 官桂가 없는 藥方이다(표21).

표 21. 獨蔘附子理中湯의 比較

	甲午本	補遺方
人蔘	5	5
白朮	2	2
乾薑	2	2
白芍藥	2	2
陳皮	1	1
炙甘草	1	1
大棗	2枚	2枚
附子	2	2
官桂		2

<단위 錢, 大棗 단위는 枚>

補遺方 猪苓白虎湯에 해당되는 페이지인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의 五十八板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論曰 … 當用 猪苓湯 白虎湯 然 …” 뿐이며, 이는 傷寒方인 猪苓湯과 白虎湯을 猪苓白虎湯으로 誤認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甲午抄錄本의 猪苓白虎湯과도 비교해 볼 때도 아래의 표 22.와 같이 藥物構成의 차이가 많이 나며 오히려 陽毒白虎湯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55) 李濟馬著.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서울. 信一文化社. 1972.

56) 李濟馬著, 朴奭彦 譯 編著.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77. 386

57) 獨蔘官桂理中湯 ○ 三十六板 人蔘 五錢 白朮 乾薑 白芍藥 官桂 各二錢 陳皮 甘草炙 各一錢 棗 二枚 本方 加附子 二錢 名曰獨蔘附子理中湯

58) 獨蔘理中湯 人蔘 五錢 白朮 乾薑 白芍藥 各二錢 陳皮 炙甘草 各一錢 大棗 二枚 本方加官桂二錢 名曰獨蔘官桂理中湯 加 附子二錢 名曰 獨蔘附子理中湯 加 紫蘇葉二錢 名曰 獨蔘蘇葉理中湯

표 22. 猪苓白虎湯의 比較

	猪苓白虎湯		陽毒白虎湯
	補遺方	甲午本	甲午本
石膏	4	4	4
生地黃	4	4	4
知母		2	
黃柏		1	
澤瀉		1	
猪苓		1	
赤茯苓		1	
荊芥	1		1
牛蒡子	1		1
羌活	1		1
獨活	0.5		0.5
玄蔘	0.5		0.5
山梔子	0.5		0.5
忍冬藤	0.5		0.5
薄荷	0.5		0.5
柴胡			0.5

<단위 錢>

(3) 甲午抄錄本에 藥物構成이 없는 藥方

補遺方 9藥方中 甲午抄錄本에서 약물구성이 존재하지 않는 藥方은 葛根蘿蔔子湯, 瀉心湯, 獨蔘湯, 千金膏의 4藥方이며 이 중에서 千金膏는 甲午抄錄本에서 언급조차되지 않은 藥方이다.

표 23. 葛根蘿蔔子湯의 비교

	補遺方	草本卷	
	葛根蘿蔔子湯	加葛根湯	葛根蘿蔔子湯
葛根	3	1	2
薏苡仁	3	1(薏米)	2
麥門冬	1.5	1.5	1.5
蘿蔔子	1	1	1.5
桔梗	1	1	1
石菖蒲	1	1	1
黃芩	1	1(元芩)	1
五味子	1	1	
麻黃	1	1	
大黃			1

<단위 錢>

補遺方の 葛根蘿蔔子湯은 草本卷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나 藥物構成이 조금 다르며 오히려 草本卷의 加葛根湯과 비교해 볼 때 主藥인 葛根과 薏米의 分量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主治證이 草本卷의 “小便不利及淋疾”은 『東醫壽世保元』의 “身熱證泄瀉”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3).

6. 四象人 藥方의 特徵

1) 少陰人 藥方의 特徵

少陰人 表病證의 기본이 되는 기존의 藥方은 桂枝湯, 八物湯 등이다.

桂枝湯의 主藥인 桂枝와 芍藥이 炙甘草와 함께 사용된 藥方은 甲午本이 辛丑本에 비해서 그 활용 빈도가 매우 낮았다.⁵⁹⁾ 東武는 太陽病에서 發熱惡寒有汗에는 桂枝湯의 變方인 川芎桂枝湯과 黃芪蘇葉湯을 사용하였고, 發熱惡寒無汗에는 桂枝湯계열이 아닌 芎歸香蘇散과 加味正氣散(藿香正氣散의 變方으로 추정됨)을 사용하였다. 이는 甲午本 당시까지 傷寒論의 시각에서 惡寒發熱有汗에 桂枝湯을 使用하고 無汗일때는 桂枝湯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시각은 辛丑本으로 改抄되면서 桂枝湯變方の 활용빈도가 늘면서 鬱狂과 亡陽 모두에서 桂枝湯계열을 사용하게 되었다.

表病證의 發熱惡寒有汗에 桂枝湯을 주로 했던 甲午本의 정신은 亡陽證에서 黃芪를 사용하는 정신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補中益氣湯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甲午本의 補中益氣湯이 陽明病自汗出 小便利의 병태에서 기존의 補中益氣湯에 桂枝湯이 합방하여 有汗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辛丑本으로 改抄되어 桂枝湯 정신이 黃芪라는 약물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9) 甲午本 新定方에서 川芎桂枝湯, 黃芪蘇葉湯, 補中益氣湯, 白何烏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의 5藥方에 사용되었고, 辛丑本 新定方에서는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黃芪桂枝湯, 川芎桂枝湯, 升陽益氣附子湯, 升陽益氣湯, 桂枝半夏生薑湯, 白何烏附子理中湯, 白何首烏理中湯, 蒜蜜湯의 10藥方에 사용되었다.

표 24. 少陰人 新定方의 藥物頻度

藥物名	甲午	辛丑	藥物名	甲午	辛丑
甘藷	1	×	益母草	3	1
灸甘草	23	21	益智仁	1	6
乾薑	13	8	人蔘	20	15
炮乾薑	×	4	茵陳	1	1
鷄	2	1	紫蘇葉	8	2
桂皮	4	2	蘇葉	×	1
桂枝	5	10	赤石脂	×	1
藿香	5	2	丁公藤	1	×
官桂	6	7	丁香	1	×
當歸	10	15	枳實	2	1
大頭蒜	1	×	陳皮	16	22
大蒜	×	1	蒼朮	3	3
獨頭蒜	2	×	川芎	11	7
大腹皮	3	2	川練子	1	×
大棗	23	22	青皮	2	2
木香	3	1	葱白	2	1
半夏	2	3	破故紙	×	1
白豆蔻	2	1	巴豆	1	1
白芍藥	21	19	白何首烏	3	13
白芍微炒	×	1	赤何首烏	×	2
白朮	19	13	香附子	3	7
白朮微炒	×	1	香薷	1	×
附子	7	×	胡椒	×	1
炮附子	×	7	黃芪	10	11
砂仁	4	2	厚朴	3	1
山楂	3	1	金蛇酒	1	1
生薑	14	17	項赤蛇	1	1
淸蜜	1	2	獐肝獐茸	1	1
小茴香	1	1	鐵漿水	1	1
罌粟殼	1	1	雉肉	×	1
良薑	2	6	海鹽汁	1	1
五靈脂	×	1	※金蛇酒 項赤蛇 獐肝獐茸 鐵漿水 雉肉 海鹽自然汁는 非新定方藥物이다.		
吳茱萸	×	2			
肉豆蔻	1	×			

※ : 甲午本과 辛丑本の 藥物頻度는 新定方의 變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少陰人 裏病證의 基本이 되는 既存의 藥方은 理中湯, 四逆湯 등이다.

理中湯의 主藥인 乾薑은 辛丑本에서 桂枝半夏生薑湯을 제외한 모든 裏病論 藥方에서 사용되는 藥物이다. 그러나 甲午本에서는 裏病論 藥方중 藿香正氣散과 香砂養胃湯에 乾薑이 사용되지 않았고, 表病論 陽明病의 藥方인 回陽大補湯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東武가 甲午本 당시에 溫肉裏하는 乾薑의 效能을 乾薑이 빠진 藿香正氣散과 香砂養胃湯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表病論 藥方인 回陽大補湯에서 乾薑이 사용된 것은 아직 기존의 十全大補湯 概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乾薑의 修治에 관해서 保健省 『東武遺稿續編』에서 溫中할때 生用해서는 안된다⁶⁰⁾고 하였고, 草本卷에서도 炮用하라 하였으나⁶¹⁾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甲午本에서 “乾薑生用 或炮用”라 하고 新定方에서는 모두 生用하였고, 辛丑本에서는 “乾薑炮用 或生用”이라 하고서 新定方에서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赤白何首烏寬中湯의 3藥方은 生用하고,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白何首烏理中湯의 3藥方은 炮用하였다. 乾薑을 生用하는 것은 甲午本의 精神이란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辛丑本 新定方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赤白何首烏寬中湯에서 生乾薑을 사용하는 것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2) 少陽人 藥方의 特徵

少陽人의 代表的인 主藥物인 生地黃과 熟地黃은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甲午本 新定方에서는 다수의 藥方에서 生地黃이 포함⁶²⁾되었으며 熟地黃이 포함된 藥方은 水火既濟湯 1藥方뿐이다. 辛丑本으로 改抄되면서 新定方에서 生地黃의 사용빈도가 조금 줄면서⁶³⁾ 熟地黃이 獨活地黃湯, 荊防地黃湯, 十二味地黃湯, 荊防地黃湯의 4藥方에서

60) 『東武遺稿續編』 : 少陰人 溫中 乾薑附子白朮等藥生用不可也

61) 草本卷 : … 乾薑 附子 南星炮用 …

62) 갑오본에서 생지황이 포함된 藥方은 천금도적산, 시호과루탕, 백호탕, 지령백호탕, 양독백호탕, 칠미지령탕, 칠미고삼탕, 목통대안탕, 황련청장탕, 방풍통성산, 도해백호탕, 수화기재탕, 청산산화탕, 백호고의 14藥方이다.

63) 신축본에서 생지황이 사용된 藥方은 목통대안탕, 지황백호탕, 양독백호탕, 황련청장탕, 형방도적산, 형방사백산, 양격산화탕, 형방패독산, 인동등지골피탕의 10藥方이다.

사용되어 활용빈도가 매우 늘었다. 甲午本의 生地黃은 주로 山茱萸와 覆盆子와 藥물배합을 이루는데 이는 脆弱한 臟腑를 보완하기 위한 초기의 생각으로 보이며 辛丑本으로 改抄되면서 이러한 사고는 사라진다.

生地黃, 石膏, 知母의 白虎湯 變方들이 裏之表病에서 綿上添花白虎湯, 渡海白虎湯, 猪苓白虎湯, 陽毒白虎湯 등이 다양하게 소개되었으나 辛丑本으로 개초되면서 陽毒白虎湯과 地黃白虎湯의 두 藥方으로 모아지면서 地黃白虎湯을 裏熱病의 聖藥으로 지켜 세우게 된다.

甲午本에서 白虎湯의 生地黃, 石膏, 知母는 裏之表病인 胸隔熱病과 三消病에서 清裏熱하는 의미로 국한되어 사용하였으나, 辛丑本에서는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등에서 石膏, 知母의 裏病 藥物이 表病 藥方에서 사용되어 활용빈도가 확대된다.

3) 太陰人 藥方의 특징

甲午本의 表之裏病인 陽毒燥證은 辛丑本에서 모두 裏病論의 燥熱病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다. 따라서 辛丑本 裏病證 藥物인 大黃, 葛根 등이 甲午本에서 表病證 藥方인 麻黃定喘湯, 升麻開腦湯, 天門冬麥門冬湯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甲午本의 太陰人 新定方은 辛丑本의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 藥方에서 表病證 藥物과 裏病證 藥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辛丑本에서는 大黃이 主藥이 되는 藥方이 없으며 藥力이 俊猛하여 조심하여 사용하라고 이르고 있다.⁶⁴⁾ 그러나 甲午本에서 皂角大黃湯, 浮萍大黃湯은 大黃의 用量이 4錢이며 主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甲午本 太陰人 裏病論은 裏之表와 裏之裏病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기존의 病證에 新定方을 나열해 놓은 방식을 취하여 病證論的 체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甲午本 太陰人 裏病論의 내용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辛丑本의 新定方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葛根浮萍湯, 乾栗楞根皮湯, 清心蓮子湯 등

에서 甲午本 藥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여기서 왜 辛丑本에서 病證論의 기술이 전혀 없이 新定方만 기술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V. 總括 및 考察

1. 甲午本에서 體質別로 活用된 新定方에서 體質別 藥物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新定方에서 使用된 藥物數를 비교하면 少陰人 藥物(46개)이 가장 많고 다음이 少陽人 藥物(36개)이 많고, 다음이 太陰人 藥物(29개)이고, 太陽人 藥物(14개)이 가장 적어, 活用약물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改抄되면서 太陽人을 제외한 세 體質의 新定方 藥物數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 이는 甲午本 당시에 太陰人 病證論的 認識體系가 정립되지 않았기에 운용할 수 있는 藥物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東醫壽世保元』의 經驗藥方은 甲午本에서 쓰여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東武는 經驗方에서 藥物을 加減하여 사용하였다. 東武는 經驗藥方에서 今考更定하여 藥物을 加減하였다. 傷寒方에서는 今考更定の 說明이 전혀 없었으며, 몇몇 後世方에서만 今考更定하여 藥物을 削除하거나 追加하였다.

둘째로 病證論중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藥方이 기술된다. 經驗藥方에서 傷寒方은 모두 37方이 기술되는데 甲午本내에서 大柴胡湯을 제외한 36方은 既存醫書에서 引用한 條文이 기술되며,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半夏散과 관련된 條文은 삭제된다. 특이할만한 것이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桂麻各半湯은 少陰人과 少陽人 藥方에서 관련된 條文이 나오며 藥物構成은 太陰人論에서 기술된다. 經驗藥方에서 後世方은 37藥方이 기술되는데 傷寒方과 달리 많은 藥方에서 관련된 條文을 찾아볼 수 없다. 자세히 살펴보면 甲午本에서 十全大補湯, 補中益氣湯, 香砂六君子湯, 木香順氣散, 蘇合香元, 茵陳四逆湯, 茵陳橘皮湯, 溫白元, 三稜消積丸, 秘方化滯丸, 如意丹, 涼膈散, 生熟地黃丸, 導赤湯, 荊防敗毒散, 肥兒

64) 辛丑本 太陰人 新定方 皂角大黃湯 升麻 葛根 各三錢 大黃 皂角 各一錢 用之者 不可過三四貼 升麻三錢 大黃 皂角 同局 藥力峻猛故也

丸, 消毒飲, 水銀熏鼻方, 石菖蒲遠志散, 調中湯, 生脈散, 梔根皮丸, 二聖救苦丸, 牛黃清心丸, 麻黃定喘湯의 25藥方은 關聯된 既存醫書條文이 없으며, 이 중에서 香砂六君子湯, 茵陳四逆湯, 茵陳橘皮湯, 涼膈散, 荊防敗毒散, 水銀熏鼻方, 二聖救苦丸, 牛黃清心丸, 麻黃定喘湯의 9藥方은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今考更定”, “論曰” 등 東武의 생각이 담긴 條文에서 언급된다.

既存醫書에서 관련된 條文을 찾아 볼 수 없는 藥方중에서 導赤散, 荊防敗毒散, 十全大補湯, 肥兒丸, 涼膈散, 如意丹, 溫白丸, 蘇合元, 牛黃清心丸의 9藥方은 『東武遺稿彙編』에서 그 用例를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로 『東醫四象新編』에多數의 藥方들이 그대로 또는 變形되어 수록되어 있다. 『東醫四象新編』에서도 經驗方이라고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經驗方과는 달리 甲午本の 新定方 및 經驗方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東醫四象新編』에서 香砂六君子湯, 白虎湯, 涼膈散, 五苓散 등과 같이 既存의 證治藥方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이 있고, 蘇合香元 등과 같이 東武가 今考更定한 것을 따른 것이 있고, 秘方化滯丸 등과 같이 東武가 今考更定하지 않았으나 他 體質藥物을 削除한 것이 있고, 李氏涼膈散, 李氏導赤散, 大補湯 등과 같이 藥方名을 바꾼 것이 있다. 이는 甲午本の 내용이 『東醫四象新編』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3. 辛丑本 新定方도 그렇듯이 甲午本 新定方에서도 용례가 없는 藥方과 주치증 조차 없는 藥方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로 用例가 없는 藥方은 甲午本 新定方중에서 獨參理中湯, 白何烏理中湯, 人參粟殼湯, 獨參良崩湯, 鷄參膏, 三十五味飲, 山人甘藷飲, 白虎膏, 朱砂益元散, 麻黃定喘湯, 鹿茸大造湯, 浮萍大黃湯, 牛黃山藥丸의 13藥方은 甲午本 病證論중에서 用例를 찾아볼 수 없다. 단지 人參粟殼湯(痢疾), 獨參良崩湯(小兒慢驚風), 鷄參膏(瘡疾痢疾), 三十五味飲(浮腫), 山人甘藷陰(浮腫), 朱砂益元散(暑證)의 6藥方은 主治證만 기술되었고, 獨參理中湯, 白何烏理中湯, 白虎膏, 麻黃定喘湯, 鹿茸大造湯, 浮萍大黃湯, 牛黃山藥丸의 7藥方은 用例와 主治證이 모두 없는 藥方이다.

主治證이 기술된 것은 주로 雜病藥方인데 東武는 病證論 내에서 이에 대한 病證分類를 하였다. 하지만 主治證과 用例가 없는 藥方은 構成藥物을 통해 病證의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東武가 理論없이 藥方만 남긴 경우이다. 이렇게 用例가 없는 藥方들은 草本卷에서와 같이 藥方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臨床經驗 등을 통해 만들어진 藥方들에 대한 理論的體系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藥物構成을 알 수 없는 藥方은 甲午本 病證論 중에서 加減正氣散, 人參附子理中湯, 白何首烏附子理中湯, 獨參黃芪八物湯, 六味地黃湯, 加減解肌湯의 6藥方이다. 『草本卷』, 『東醫四象新編』 등에서 藥方名이 일치하는 것이 있지만 甲午本에서 말하는 藥方과 실제로 일치하는가는 알 수 없다. 이는 東武가 新定方을 정리하면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辛丑本 중에서多數의 甲午本 藥方이 보인다. 補遺方은 辛丑本 이후 『東醫壽世保元』의 甲午本 藥方을 기술한 것으로 桂附藿陳理中湯, 獨參官桂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 猪苓白虎湯, 葛根蘿蔔子湯, 瀉心湯, 獨參湯, 千金膏의 8藥方을 언급하였다.

千金膏를 제외한 7藥方은 甲午抄錄本에서 언급되는 藥方이지만 獨參官桂理中湯, 猪苓白虎湯, 葛根蘿蔔子湯의 藥物構成이 다르며, 獨參湯과 瀉心湯은 經驗方으로 추정되지만 藥物構成을 기술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甲午抄錄本과 補遺方의 차이는 加筆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甲午本の 많은 條文들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庚子本으로 옮겨가는 條文 중에서 기술되는 藥方은 모두 甲午本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로 辛丑本 新定方과 비교해 볼 때 太陰人 藥方의 變化가 매우 많았다.

4. 四象人의 新定方을 辛丑本과 비교해 볼 때 甲午本の 新定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먼저 少陰人의 表病論에서 桂枝 활용빈도가 辛丑本에 비해서 떨어졌으며, 裏病論에서는 香砂養胃湯, 藿香正氣散 등에서 乾薑 또는 附子를 사용하지 않는 藥方이 있었다. 이는 甲午本 당시까지 藥物 사용에 있어 辛丑本만큼 정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少陽人 藥方에서 熟地黃이 사용된 藥方은 水火既

濟湯뿐이었으며 生地黃과 山茱萸, 覆盆子の 藥材배합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白虎湯이 기술되었으나 辛丑本에서는 陽毒白虎湯과 地黃白虎湯으로 통합되었고, 白虎湯 藥材인 生地黃, 石膏, 知母가 裏之表病인 胸膈熱病과 三消病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나 辛丑本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病證의 범위가 넓어졌다.

太陰人 藥方은 表裏病證의 區分이 辛丑本과 크게 다르며 이러한 특징이 藥方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즉 辛丑本 시각의 表裏藥材이 혼용되어 사용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皂角大黃湯, 浮萍大黃湯 등에서 主藥으로 大黃을 사용하는 정신이 있었으나 이는 辛丑本에서 찾아볼 수 없는 藥物選擇의 정신이다.

VI. 結 論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를 중심으로 藥方의 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甲午本 藥方에 대한 것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甲午本 新定方에서 사용된 藥物은 少陰人 46種, 少陽人 36種, 太陰人 29種, 太陽人 14種해서 총 125藥材이다. 甲午本 新定方은 平均 藥物數가 매 처방 9.3개, 平均 藥物分量이 매 처방 12.7錢이다.
2. 『東醫壽世保元』 經驗藥方은 甲午本의 內容이다. 張仲景經驗藥方 37方은 모두 關聯條文이 기술되나, 宋元明經驗藥方 37方은 단지 12方(32%)만 關聯條文이 기술된다.
3. 甲午本 新定藥方 69方 中 病證論에서 關聯條文이 없는 藥方이 13方(19%)이다. 13方中에서 7方은 新定藥方에서 主治證조차 없으나 이 중에서 6藥方은 『東醫四象新編』에서 主治證이 설명된다.

4. 甲午本 病證論의 東武의 藥方이라 추정되는 것들 중에서 加減正氣散, 人蔘附子理中湯, 白何首烏附子理中湯, 獨蔘黃芪八物湯, 六味地黃湯, 加減解肌湯의 6藥方은 藥物構成을 알 수 없었다.
5. 辛丑本 少陰人 泛論에서 언급되는 東武의 新定方은 모두 甲午本 新定方으로 보아야 한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3. 李濟馬著. 詳校嘔吐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1972.
4. 李濟馬著, 朴奭彥譯.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77.
5.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鬚編. 海東出版社. 1999.
6. 李濟馬著, 金達來編譯. 東醫壽世保元草藁. 鼎談. 1999.
7.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友文社. 1929.
8. 李壽瓊, 宋一炳.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의 書誌學的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 ; 11(1) : 63-77.
9. 李在媛, 宋一炳.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에 관한 文獻的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 ; 11(2) : 75-94.
10. 옥윤영, 김경요.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의 比較를 통한 四象 方劑의 變遷 科程에 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0 ; 12(2) : 43-55.